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조 은 주¹⁾

박 회 현²⁾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강점, 강점활용, 진로정체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전국의 4년제 대학 대학생 799명이며, 측정도구는 성격강점, 진로적응성, 강점활용, 진로정체감의 네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이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다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기지향-타인지향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중다매개효과를 팬텀모형 상에서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지향-타인지향 성격강점, 강점활용, 진로정체감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지녔다. 둘째, 자기지향-타인지향 성격강점, 강점활용, 진로정체감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모형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지향-타인지향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강점활용의 매개효과와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셋째, 자기지향-타인지향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 사이에서 강점활용이 진로정체감을 거쳐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순차적인 중다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여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대학생, 성격강점, 진로적응성, 강점활용, 진로정체감

* 본 논문은 한국인간발달학회 2022년 춘계연합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확장한 것임.

1) 동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

2)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E-mail: gpark25@ds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졸자의 취업 후 조기퇴사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극심한 취업난을 뚫고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고 도 1년 안에 회사를 떠나는 대졸 신입사원이 4명 중 1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기퇴직의 사유로는 조직 및 직무의 적응실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16). 이를 통해 새로운 직업세계에 진입하여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변화들에 적응하고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여전히 진로에 대한 혼란과 갈등 등으로 단기간에 진로를 변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 새로운 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및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적응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현실적 진로환경은 당면해 있는 취업해결을 위한 구직위주의 취업준비와 직업에 대한 이해 및 정보수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업 세계로의 전환이나 직업 세계에서 의 적응을 위한 교육은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진로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변인이 진로적응성이다. 대학생 시기는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로 직업세계에 순조로운 전환 및 새로운 직업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을 갖추어야 하는 발달과업이 내재되어 있다(장계영, 2009). 이에 본 연구는 직업세계

로의 전환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조망하고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측면에서 적합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은 일과 관련된 과업을 준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직업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준비도를 의미하며(Tak, 2012), 현재와 미래에 있을 직업적 발달과업, 직업적 전환, 개인적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와 자원을 말하는 심리사회적 구인으로(Savickas, 2005), 현재와 미래의 진로개발과제, 직업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자기조절적인 행동역량 또는 개인자원 등으로 확장하여 설명되고 있다(Savickas & Porfeli, 2012).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조직환경의 요구에 잘 적응하며 개인과 환경의 자기조절을 통해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Creed, Muller, & Patton, 2003; Germeijs & Verschueren, 2007), 전환 후의 적응과 적응 후의 변화상황 및 미래의 직업적응과 진로성공을 예측할 수 있으며(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장계영, 2009),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주도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성연, 홍지영, 2010). 진로적응성은 직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과 태도로 진로성공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전생애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로전환 및 직업세계에서의 적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적응성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강현옥,

임진선, 2016; 문승태 등, 2012; 박진아, 2014; 유형숙, 2016; 이순희, 손은령, 2013; 이정희, 2016; 이호진, 김완일, 2016;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6)에서 진로정체감, 자기주도성, 성격강점, 강점활용, 진로관여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이존중감, 낙관성 등이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 변인들로 밝혀졌다.

Hirschi(2009)는 진로적응성이 개인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진로 핵심요인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긍정적 요인이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 진로분야에서도 인간의 정서와 긍정적인 특질들을 주요 변인으로 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성격강점과 강점활용은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부금, 이희경, 2012; 박진아, 2014; 이정희, 2016; 이호진, 김완일, 2016; 조남근 등, 2016).

성격강점은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 특질을 의미하며(Peterson & Seligman, 2004),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의 특성으로 행복증진과 최적의 기능 발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순간적으로 머무르는 감정 상태를 긍정적으로 지속시켜주는 행동양식이나 탁월한 성품과 덕목이다. 본 연구에서의 성격강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긍정적인 품성 중에서 남보다 우세하거나 뛰어난 점을 의미한다. 또한 강점활용은 가치 있는 결과를 위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말한다(Linley & Harrington, 2006).

최근 연구결과들은 성격강점과 강점활용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김영희, 문현주, 2017; 김지영, 권석만, 2013; 김현미, 2016; 이

정희, 2016; 이지원, 이기학, 2017), 자기개념의 긍정적인 형성과 유지를 촉진하는 변인인 성격강점과 강점활용이 성숙한 진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민정, 이희경, 2014; 윤소민, 강진령, 2013; Lopez, 2011). 또한 성격강점은 강점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적응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Govindji & Linley, 2007;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Wood, Linley, Kashdan, & Hurling, 2011). 즉, 성격강점이 적응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강점활용이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내적 요인인 성격강점과 강점활용이 직업환경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성격강점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VIA(Values in Action)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성격강점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밀접한 요인구조의 한계점과 요인구조와 관련된 충분한 경험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권석만, 2011; 박진아, 2014; 백옥경, 2014; Peterson, 2006).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Peterson(2006)은 VIA분류체계에 근거한 성격강점의 원형모형을 제시하였다. 성격강점의 원형모형의 X축은 자기지향성-타인지향성으로 성격강점의 초점을 의미하며, Y축은 인지적 억제-정서적 표현으로 심리적 기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Peterson(2006)이 제안한 성격강점의 원형모형의 두 가지 축 중에서 X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성격강점의 초점을 자기지향성과 타인지향성으로 구분한 것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상의 원천을 자신과 타인 중 어떤 것에 치중하는가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지향성을 지니는 동시에 관계적 측면에서 오는 행복감을 위한 타인지향성을 갖는다. 즉, 자기지향성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독립적으로 자기실현을 이루려는 경향성을 의미하며, 타인지향성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며 보살피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Millon, 1990; Millon & Davis, 1996).

이정희(2016)는 타인지향성보다 자기지향성의 더 많은 하위요인들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초등학생의 성격강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지향성이 진로성숙과 더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김현지, 201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적응에 있어서도 타인지향성 보다 자기지향성의 더 많은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용주, 2010). 이와 같이 성격강점의 초점에 따라 진로 및 적응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리 확인되었다. 이에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진로에 적응하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격강점의 초점이 자기와 타인 중 누구를 향해 있는지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성격강점 지향의 초점에 따라 자신의 강점활용 및 다양한 적응문제 상황에서도 다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Peterson(2006)의 성격강점 원형모델의 X 축인 자기지향성과 타인지향성으로 성격강점을 구분하여 진로적응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하고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변인으로 채택하여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의 긍정적 정서기질인 성격강점과 강점활용은 대학생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이지원, 이기학, 2017; Colby, James, & Hart, 1998), 대학생의 강점활용은 성격강점 및 진로정체감과 서로 긍정적인 상관을 지니며 성격강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이 확인되었다(이지원, 이기학, 2017). 이를 통해 성격강점과 강점활용 변인 모두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성격강점이 강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점활용은 진로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진로적응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은 더 나은 성취를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자율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일을 내면화시킨다(Forest et al., 2012). 자아정체감에 일의 영역을 적용한 개념이 진로정체감이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적응성과 함께 취업능력의 주요요인에 포함되며(Fugate et al., 2004), 진로기회를 탐색하는데 사용하는 인지적 나침반으로 진로상황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왜 여기에 있는가를 아는 것을 통해 확립된다. 국내 여러 선행연구(강현욱, 임진선, 2016; 김민정, 이희경, 2014; 이지원, 이기학, 2017; 임효신, 정철영, 2010; 정미숙, 2010; 조성연, 민경석, 2011)에서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진로적응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즉, 진로정체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명확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에 긍정적 예측 변수로 제시될 수 있다.

성격강점이 진로정체감을 통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드물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격강점과 강점활용이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 강점활용을 통해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성격강점이 진로정체감에, 진로정체감은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격강점과 강점활용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쳤고, 진로정체감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이지원과 이기학(2017)은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각 변인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긍정적 요인인 성격강점과 강점활용, 진로발달차원에서 진로정체감이 진로적응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진로적응성 발달 연구의 주요변인으로 채택하여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성격강점, 강점활용, 진로정체감, 진로적응성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들을 확인하고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에 실천적인 개입의 방향성 제공 및 대학생의 진로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격강점이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적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자기지향·타인지향 성격강점, 강점활용, 진로정체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자기지향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타인지향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대학교 대학생 7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 306명(38.3%), 여학생 493명(61.7%)이고 1학년 395명(49.6%), 2학년 249명(31.2%), 3학년 70명(8.8%), 4학년 83명(10.4%)이었다. 전공계열별 특성은 인문계열 217명(28.1%), 사회과학계열 137명(17.8%), 자연과학

계열 124명(16.1%), 사범계열 113명(14.7%), 공학계열 96명(12.5%), 예체능계열 42명(5.4%), 기타 42명(5.4%)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측정도구

성격강점

대학생의 성격강점을 측정하기 위하여 Peterson과 Seligman(2004)이 개발한 성격강점 척도 VI A-IS(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김인자(2006)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48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검사는 240개의 전체 문항 중 24가지 성격 강점에 관한 문항을 각각 2개씩 추출하여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강점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VIA분류체계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VIA분류체계에 따른 24개의 성격강점들은 서로 밀접한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권석만, 2011). 이에 본 연구는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Peterson(2006)이 제안한 성격강점 원형모델을 근거로 자기지향성 성격강점과 타인지향성 성격강점의 2개의 하위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자기지향-타인지향 성격강점은 성격강점의 초점이 자신에게 지향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지향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자기지향성 성격강점은 창의성, 호기심, 활력, 학구열, 낙관성, 용감성, 지혜, 개방성, 끈기, 사회지능, 자기조절, 심미안, 영성의 13개 강점과 타인지향성 성격강점은 유머감각, 감사, 사랑, 진실성, 신중성, 용서, 이타성, 리더십, 겸손, 공정성, 시

민의식의 11개의 강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다르다(1점)’에서 ‘매우 비슷하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강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척도의 신뢰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자기지향 성격강점 .84, 타인지향 성격강점 .80으로 나타났다.

강점활용

대학생의 강점활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Govindji와 Linley(2007)가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박부금과 이희경(201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강점활용 척도(Korean version of Strengths Use Scale: K-SU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통해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과 장면에서 자신의 강점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측정할 수 있다. 강점활용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Likert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강점활용 척도의 대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 ‘나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강점을 활용한다’, ‘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등을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Govindji와 Linley(2007)가 개발 당시 강점활용 척도의 신뢰도는 .95였으며, K-SUS(박부금, 이희경, 2012)의 신뢰도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신정과 김성희(2012)가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진로정체감 정서 8문항, 진로정체감 인지 8문항, 진로정체감 행동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진로정체감 전체 신뢰도는 .8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과 전체 신뢰도는 정서 .93, 인지 .84, 행동 .85, 전체 .92로 나타났다.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Savickas와 Porfeli(2012)이 개발한 CAAS(Career Adapt Ability Scale)를 Tak(201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4문항으로 하위요인은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으로 각 6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avickas와 Porfeli(2012)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전체 .92로 보고되었고, Tak(2012)의 척도는 전체 신뢰도 .9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과 전체 신뢰도는 관심 .87, 통제 .84, 호기심 .81, 자신감 .84, 전체 .9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전국 4년제 대학교 7개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실시를 위해 해당 학교의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를 검사 협조자로 우선 선

정하였고 강의를 맡고 있는 담당 교수를 직접 만나서 설문지를 전달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수업시간에 참석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검사 실시에 앞서 본 연구의 취지와 함께 설문지 실시 때 필요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검사 협조자가 연구자를 대신하여 검사 실시요령을 전달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지는 총 90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847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799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이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으로 이어져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더불어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이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다매개모형(multiple mediator model)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잠재변인 가운데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자기지향 성격강점, 타인지향 성격강점, 강점활용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3개의 문항꾸러미로 구성하여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우종필, 2016; Kline, 2010). 넷째, 성격강

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강점활용, 진로 정체감 각각의 매개효과와 강점활용과 진로 정체감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과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모형(phantom model) 상에서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대학생의 자가지향·타인지향 성격강점, 강점활용, 진로정체감과 진로적응성 간의 상관분석

각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성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측정변인들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의 자가지향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측정모형I 검증

구조방정식 2단계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N = 799$)

연구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격 강점	1. 자기지향	1											
	2. 타인지향	.77**	1										
	3. 강점활용	.62**	.57**	1									
	4. 정서	.47**	.39**	.42**	1								
진로 정체감	5. 인지	.45**	.42**	.48**	.51**	1							
	6. 행동	.39**	.31**	.47**	.45**	.45**	1						
	7. 전체	.44**	.37**	.46**	.48**	.45**	.45**	1					
	8. 관심	.52**	.41**	.47**	.45**	.56**	.53**	.51**	1				
진로 적응성	9. 통제	.63**	.54**	.61**	.41**	.54**	.35**	.43**	.59**	1			
	10. 호기심	.61**	.46**	.58**	.30**	.45**	.45**	.40**	.59**	.61**	1		
	11. 자신감	.63**	.51**	.66**	.35**	.41**	.39**	.38**	.51**	.62**	.64**	1	
	12. 전체	.60**	.48**	.58**	.38**	.49**	.43**	.43**	.56**	.61**	.58**	.61**	1
평균		3.41	3.51	4.83	3.28	3.80	3.16	3.41	3.76	3.81	3.59	3.50	3.68
표준편차		.41	.40	.94	.95	.64	.72	.62	.64	.61	.60	.60	.51
왜도		.14	.27	.02	-.09	.01	.01	-.08	-.17	-.08	.15	.17	.09
첨도		.21	.29	.30	-.77	-.59	.05	-.60	.03	-.05	-.04	-.16	-.18

** $p < .01$.

표 2. 측정모형I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I	587.15	94	.000	.932	.947	.081

측정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모형I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TLI가 .932, CFI는 .947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RMSEA도 .081로 보통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 측정모형은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된다.

연구모형I 검증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산출된 연구모형I의 적합도는 표 3과 같다. 적합도 검증 결과, TLI .929, CFI는 .946, RMSEA가 .093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연구모형I의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표 4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I에서는 자기지향 성격강점에서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beta = .45, p < .001$), 자기지향 성격강점에서 강점활용에 이르는 경로($\beta = .69, p < .001$), 강점활용에서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beta = .23, p < .001$), 자기지향 성격강점에서 진로정체감에 이르는 경로($\beta = .40, p < .001$), 진로정체감에서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beta = .34, p < .001$), 강점활용에서 진로정체감에 이르는 경로($\beta = .40, p < .001$)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자기지향 성격강점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졌고, 자기지향 성격강점이 높을수록 강점활용이 높아졌고, 강점활용이 높

표 3. 연구모형I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I	465.98	59	.000	.929	.946	.093

표 4. 연구모형I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p
자기지향 성격강점→진로적응성	.57	.45	.06	9.82	.000
자기지향 성격강점→강점활용	1.64	.69	.09	18.44	.000
강점활용→진로적응성	.12	.23	.02	5.82	.000
자기지향 성격강점→진로정체감	.49	.40	.07	7.09	.000
진로정체감→진로적응성	.36	.34	.05	6.73	.000
강점활용→진로정체감	.20	.40	.03	7.56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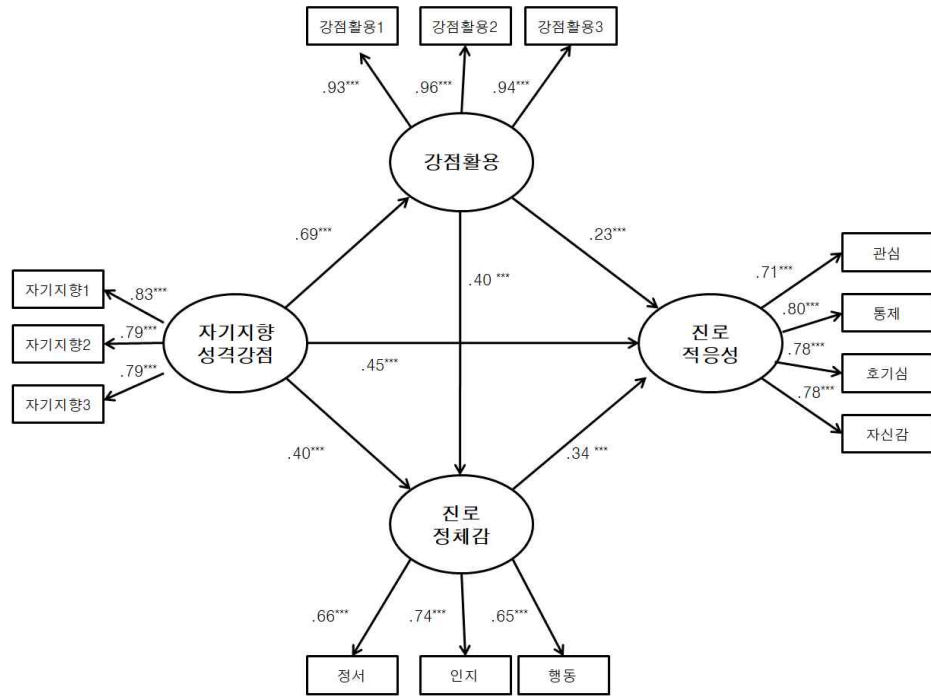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졌고, 자기지향 성격강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졌고,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졌고, 강점활용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졌다.

연구모형I을 팬텀모형 상에서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기지향 성격강점이 강점활용을 매개로 하여 진로적응

성에 이르는 경로(추정값 = .20, 95%(.13, .26))에서 강점활용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둘째, 자기지향 성격강점이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추정값 = .17, 95%(.12, .25))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지향 성격강점이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추정값 = .12, 95%(.07, .18))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표 5. 연구모형I의 중다매개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SE	p	95% 신뢰구간	
자기지향 성격강점→강점활용→진로적응성	.20	.04	.002	.13	.26
자기지향 성격강점→진로정체감→진로적응성	.17	.04	.001	.12	.25
자기지향 성격강점→강점활용→진로정체감→진로적응성	.12	.03	.002	.07	.18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고 있어 측정모형은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된다.

3. 대학생의 타인지향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측정모형Ⅱ 검증

구조방정식 2단계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측정모형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TLI가 .939, CFI는 .955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RMSEA도 .092로 보통 적합도를 보

연구모형Ⅱ의 검증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산출된 연구모형Ⅱ의 적합도는 표 7과 같다. 연구모형Ⅱ는 TLI가 .934, CFI는 .950, RMSEA가 .088을 보여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모형Ⅱ는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연구모형Ⅱ의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표 8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Ⅱ에서는 타인지향 성격강점에서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beta = .23, p < .001$), 타인지향 성격강점에서 강점활용에 이르는 경로($\beta = .56, p < .001$), 강점활용에서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beta =$

표 6. 측정모형Ⅱ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Ⅱ	369.56	48	.000	.939	.955	.092

표 7. 연구모형Ⅱ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Ⅱ	424.35	59	.000	.934	.950	.088

표 8. 연구모형Ⅱ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p
타인지향 성격강점→진로적응성	.27	.23	.05	5.97	.000
타인지향 성격강점→강점활용	1.26	.56	.09	14.88	.000
강점활용→진로적응성	.19	.35	.02	8.54	.000
타인지향 성격강점→진로정체감	.35	.32	.05	6.57	.000
진로정체감→진로적응성	.46	.43	.06	7.92	.000
강점활용→진로정체감	.19	.50	.02	8.54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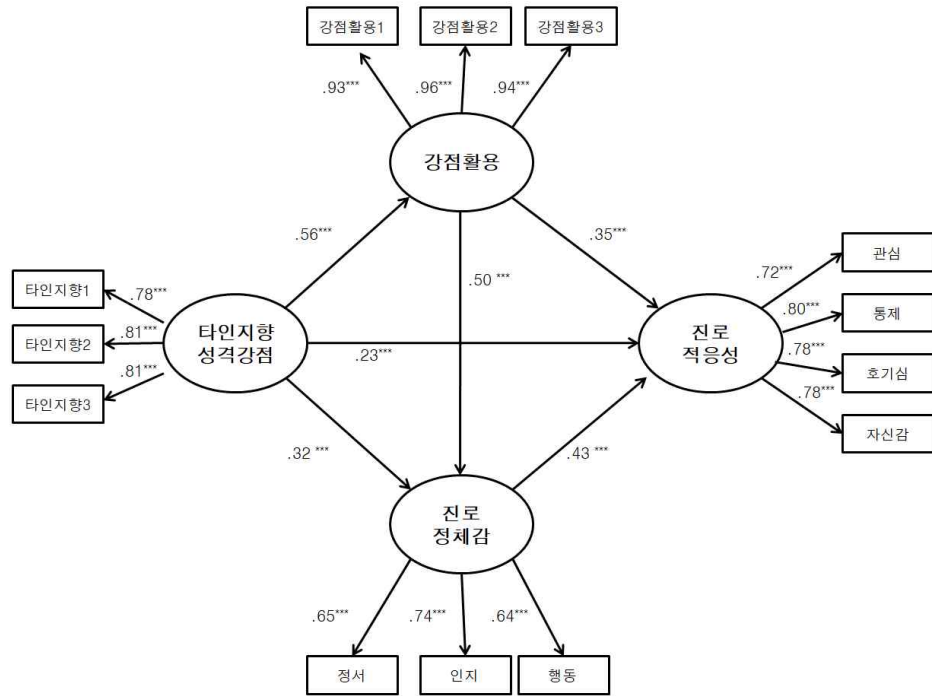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II

.35, $p < .001$), 타인지향 성격강점에서 진로 정체감에 이르는 경로($\beta = .32$, $p < .001$), 진로 정체감에서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beta = .43$, $p < .001$), 강점활용에서 진로정체감에 이르는 경로($\beta = .50$, $p < .001$)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타인지향 성격강점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졌고, 타인지향 성격강점이 높을수록 강점활용이 높아졌고, 강점활용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졌고, 타인지향 성격강

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졌고, 진로 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졌고, 강점활용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졌다.

연구모형 II을 팬텀모형 상에서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타인지향 성격강점이 강점활용을 매개로 하여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추정값 = .24, 95%(.18, .29))에서 강점활용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둘

표 9. 연구모형 II의 중다매개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SE	p	95% 신뢰구간	
타인지향 성격강점→강점활용→진로적응성	.24	.04	.002	.18	.29
타인지향 성격강점→진로정체감→진로적응성	.16	.04	.002	.11	.23
타인지향 성격강점→강점활용→진로정체감→진로적응성	.15	.03	.002	.11	.19

제, 타인지향 성격강점이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추정값 = .16, 95%(.11, .23))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타인지향 성격강점이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추정값 = .15, 95%(.11, .19))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강점, 강점활용, 진로정체감, 진로적응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지향 성격강점과 타인지향 성격강점은 모두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으며, 타인지향 성격강점 보다 자기지향 성격강점이 진로적응성에 다소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지향 성격강점의 하위요인인 낙관성이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순희, 손은령, 2013)와 다른 성격강점들에 비해 자기지향 성격강점(사회지능, 창의성, 학구열, 낙관성, 활력)이 상대적으로 진로성숙에 높은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김현지, 2017)와 일치한다. 자기지향 성격강점은 행복한 삶을 위해 보상의 원천을 타인보다 자신에게 치중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스스로에게 격려하여 용기를 주는 자기격

려는 자신의 가치와 강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에게 용기를 갖게 함은 물론,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인의 신념을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정민, 노안영, 2008). 따라서 성격강점의 초점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대학생들은 자기격려를 통해 자신감과 자기확신감을 확보하고 진로발달을 촉진하여 진로적응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있어 자기지향-타인지향 성격강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것은 자신의 성격강점에 대해 높게 인식했을 때 진로적응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박진아, 2014; 유형숙, 2016; 이정희, 2016)와 일치한다. 또한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서혜진, 2016; 이지원, 이기학, 2017)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신의 성격강점에 대한 이해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김민정, 이희경, 2014)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이처럼 자신의 성격강점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인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격강점의 계발과 더불어 진로발달과업, 직업전환에 대한 인식, 격려, 대처 태도, 자아존중감 등의 향상을 위한 진로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지향 성격강점과 타인지향 성격강점은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기지향 성격강점

과 타인지향 성격강점이 높을수록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이 높아져 진로적응성 수준을 높인다는 것으로 자기지향 성격강점의 하위요인인 낙관성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최란경, 2009)와 성격강점이 강점활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정희, 2016; 이지원, 이기학, 2017)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자신의 성격강점 인식과 계발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강점을 활용하여 성취감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함으로써 올바른 진로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에 당면했을 때에도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으면 당면한 문제에 잘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강점활용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정희, 2016; 이지원, 이기학, 2017; 이호진, 김완일, 2016)와 일치하고, 진로정체감이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강현욱, 임진선, 2016; 이지원, 이기학, 2017; 조성연, 민경석, 2011)와 일치한다. 강점활용은 행동적인 측면에서 진로정체감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진로발달을 촉진하여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기지향 성격강점과 타인지향 성격강점 모두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강점활용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강점활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이정희, 2016)와 일치한다. 또한 성격강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

향에서 강점활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조남근 등, 2016)와 유사하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 있으며, 보다 주체적이고 확신이 있는 성숙한 진로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이호진, 김완일, 2016; Seligman, 2006). Govindji와 Linley(2007)은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활력이 생기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하였다. 즉, 대학생이 자신의 성격강점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강점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증진된 강점활용은 직업세계에서의 적응 수준 향상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자기지향 성격강점과 타인지향 성격강점 모두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성격강점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이지원, 이기학, 2017; Colby et al., 1998), 진로정체감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강현욱, 임진선, 2016; 조성연, 민경석, 2011)를 통해 예측한 매개효과가 확인됨으로써 진로정체감이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실천적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대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성격강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로정체감이 매개되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로정체감 수준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에 대한 정체성은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격강점과 진로정체감 향상 프로그램

실시 및 진로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의 성격특성에 대한 이해 및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 목표를 알아가게 함으로써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의 적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의 자기지향 성격강점과 타인지향 성격강점 모두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순차적 중다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자신의 성격강점에 대한 이해와 강점활용은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진로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강점인식과 대학생 활적응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이지원, 이기학, 2017)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의 성격강점을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강점활용을 증진시키고, 강점활용을 통해 진로정체감을 획득하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성격강점의 초점에 따른 구분 없이 성격강점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적응성 등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지원, 이기학, 2017; 조남근 외, 2016)과 달리 김현지(2017), 이용주(2010)와 이정희(2016) 등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성격강점의 초점에 따라 구분한 자기지향 성격강점과 타인지향 성격강점이 각 변인들 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강점이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긍정적 특성이라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격강점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덕목으로 인

간의 고유한 특성과 사회적 조화의 측면에서 강점 자체만으로도 충만한 삶에 기여한다. 따라서 성격강점의 초점이 자신과 타인 중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의 지향점과 상관없이 강점 자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지향 성격강점과 타인지향 성격강점이 진로적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강점활용이 진로정체감을 거친 중다매개효과가 검증됨으로써 매개 변인들 간에 순차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중다매개효과가 검증됨으로써 진로 전환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격강점, 강점활용, 진로정체감은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과 노력을 통해 개발 될 수 있는 변인들이다. 따라서 대학생활 중에 성격강점과 강점활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대학생들이 대학생 시기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고 진로발달 과업을 완수하여 취업 후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더불어 미래에 있을 직업적 발달과업, 직업전환 및 개인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와 자원이 진로적응성이다(Savickas, 2005).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선언으로 직업세계의 커다란 변화가 예견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변화에 긍정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을 요구하고 있다(Ridderstrale & Nordstrom, 2004). 그러나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로 조기퇴직하고 있는 대졸 신입사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변인들을 확인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성격강점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강점활용이 진로정체감을 거치는 순차적 중다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강점활용은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상담이나 진로지도를 통해 성격강점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강점활용을 증진시켜 준다면 진로정체감 형성 및 진로적응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준비 및 계획행동에 보다 효과적인 조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성격강점에 대해 지각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강점을 활용한 대학생들은 안정적인 진로정체감 획득을 통해 진로에 대한 적극성을 갖게 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성격강점을 이해하는 것은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고 이는 진로정체감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실천하며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성격강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이를 자각하고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개발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보고된다(Buckingham, 2009). 따라서 대학생들의 성격강점 개발과 강점활용을 통한 진로정체감 확립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이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상담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신의 성격강점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대학생의 진로발달에서 진로적응성의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구조적 관계를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강점, 강점활용, 진로정체감을 확립하여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근거자료와 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현욱, 임진선 (2016). 간호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정체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검증: 치료레크리에이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5(1), 569-578.
- 권석만 (2011). 인간의 긍정적 성품: 긍정심리학적 관점. 서울: 학지사.
- 김민정, 이희경 (2014).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강점활용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811-1830.
- <https://doi.org/10.15703/kjc.15.5.201410.1811>

- 김신정, 김성희 (2012).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3), 1425-1441.
<https://doi.org/10.15703/kjc.13.3.201206.1425>
- 김영희, 문현주 (2017).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성격강점과 강점활용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5(1), 177-196.
<https://doi.org/10.35151/kyci.2017.25.1.009>
- 김인자 (2006). *행복심리*.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김지영, 권석만 (2013). 성격강점의 인식과 활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4), 783-802.
<https://doi.org/10.15842/kjcp.2013.32.4.002>
- 김현미 (2016). 성격의 대표강점과 안녕감의 관계 및 대표강점의 활용에 기반한 안녕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지 (2017). 초등학생의 성격강점과 진로성숙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대학생의 인간관계와 학습의 자기주도성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진로교육연구*, 25(3), 39-60.
- 박부금, 이희경 (2012). 강점활용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1(3), 599-616.
- 박진아 (2014). 대학생의 성격강점, 자기조절효능감,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옥경 (2014). 대학생들의 성격적 강점, 자기결정성,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혜진 (2016). 성격강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역경 후 성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6).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라이카데미.
- 유형숙 (2016). 관광전공 여대생의 강점인식과 진로관여행동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MICE관광연구*, 16(4), 195-211.
- 윤소민, 강진령 (2013). 강점기반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1), 103-123.
- 이순희, 손은령 (2013).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525-2544.
<https://doi.org/10.15703/kjc.14.4.201308.2525>
- 이용주 (2010). 청소년의 성격적 강점과 학교적응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애, 최용용 (2008). 진로가치 명료화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1), 129-146.
<https://doi.org/10.15703/kjc.9.1.200803.129>
- 이정희 (2016). 관광전공대학생의 성격강점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강점활용의 매개효과. *동북아관광연구*, 12(3), 249-268.
- 이지원, 이기학 (2017).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205-228.

- <https://doi.org/10.15703/kjc.18.1.201702.205>
 이호진, 김완일 (2016). 특성화 고등학교의 주도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강점활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8), 311-333.
- <https://doi.org/10.21509/KJYS.2016.07.23.8.311>
 임효신, 정철영 (2010).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창의성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4), 53-73.
- <https://doi.org/10.23840/agehrd.2010.42.4.53>
 장계영 (2009).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숙 (2010). 비서과 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논총*, 19(2), 49-70.
- 정민, 노안영 (2008).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진로정체감과 자아강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213-227.
- <https://doi.org/10.16983/kjsp.2008.5.3.213>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6).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강점활용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1-27.
- 조성연, 민경석 (2011). 성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차이 및 관계. *진로교육연구*, 24(3), 59-76.
- 조성연, 홍지영 (2010). 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관계연구. *상담학연구*, 11(3), 1099-1115.
- <https://doi.org/10.15703/kjc.11.3.201009.1099>
 최란경 (2009). 신세대병사들의 낙관성향과 삶의 목적수준이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6).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서울: KEF한국경영자총협회.
- Buckingham, M. (2009). *Find your strongest life*. NY: Harper Collins.
- Colby, A., James, J. B., & Hart, D. (1998). *Competence and character through lif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eed, P. A., Muller, J., & Patton, W. (2003). Leaving high school: The influence and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related confidence. *Journal of Adolescence*, 26(3), 295-311.
- [https://doi.org/10.1016/S0140-1971\(03\)00015-0](https://doi.org/10.1016/S0140-1971(03)00015-0)
 Forest, J., Mageau, G. A., Crevier-Braud, L., Bergeron, E., Dubreuil, P., & Lavigne, G. L. (2012). Harmonious passion as an expla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signature strengths' use and well-being at work: Test of an intervention program. *Human Relations*, 65(9), 1233-1252.
- <https://doi.org/10.1177/0018726711433134>
 Germeijs, V., & Verschueren, K. (2007).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Consequences for choice implementation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2), 223-241.
- <https://doi.org/10.1016/j.jvb.2006.10.004>
 Govindji, R., & Linley, P. A. (2007). Strengths

- use, self-concordance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strengths coaching and coaching psychologists.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2(2), 143-153.
-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https://doi.org/10.1016/j.jvb.2009.01.002>
- Kline, R. B. (2010).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Guilford Press.
- Linley, P. A., & Harrington, S. (2006). Strengths coaching: A potential-guided approach to coaching psychology.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1(1), 37-46.
- Lopez, S. J. (2011). 인간의 강점 발견하기. 권석만, 정지현(공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2008)
- Millon, T. (1990). Toward anew personology: *An evolutionary model*. NY: John Wiley & Sons.
- Millon, T., & Davis, R. O.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V and beyond* (2nd ed.). NY: John Wiley & Sons.
- Peterson, C.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BY: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 Ridderstrale, J., & Nordstrom, K. (2004). *Karacke capitalism Management for mankind*. Harlow: Prentice-Hall.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47-259.
<https://doi.org/10.1002/j.2161-0045.1997.tb00469.x>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The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80(3), 661-73.
<https://doi.org/10.1016/j.jvb.2012.01.011>
- Seligman, M. E. P. (2006). 긍정심리학: 진정한 행복 만들기. 김인자(역). 서울: 물푸레. (원본 발간일, 2002)
- Seligman, M. E. P.,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421.
<https://doi.org/10.1037/0003-066X.60.5.410>
- Tak, J. K.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Kore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712-715.
<https://doi.org/10.1016/j.jvb.2012.01.008>
- Wood, A. M., Linley, P. A., Maltby, J., Kashdan, T. B., & Hurling, R. (2011). Using personal

and psychological strengths leads to increases in well-being over time: A longitudinal study and the development of the strengths use questionnai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1), 15-19.

<https://doi.org/10.1016/j.paid.2010.08.004>

1 차원고접수 : 2022. 10. 11.

수정원고접수 : 2022. 11. 30.

최종게재결정 : 2022. 12. 27.

Mediated Effects of Strengths Use and Career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Cho, Eun-joo

Park, Huihyun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 strengths use, career identity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and confirms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ngths use and career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 and career adaptability. The subjects were 799 students from four-year universities. Four measurement tools were used: character strength, strengths use, career identity and career adaptability.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then conduc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indicate the mediating effects.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and multiple mediating effects was verified using the bootstrapping method of a phantom model approach.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among self-oriented and other-oriented character strengths, strengths use, career identity,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higher their self-oriented and other-oriented character strengths were, the stronger the level of their strengths use, career identity, and career adaptability. Second, in respect to the relationship among self-oriented and other-oriented character strengths and career adaptability, strengths use and career identity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Third, strengths use went through the career identity and had subsequent multiple mediating effects on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oriented and other-oriented character strengths and career adaptability.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identify significant variables in improving the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ovide necessary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areer educat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university students, character strength,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strengths use